

## 2016 공인노무사 제25회 2차 민사소송법 해설 및 총평 (변호사 김광수)

이번 민사소송법 시험은 민사소송 전반에 걸쳐 고루고루 출제된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주 구석에 나온 것도 없고 평이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제1문

당사자적격과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강의 때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자 파트에서 올해 출제될 수 있는 유력한 부분은 당사자 적격 부분이었는데요.

일반적 당사자적격과 제3자 소송담당, 다시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에는 법정소송담당과 임의 적 소송담당이 있지요.

순서대로 논하면서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로 해결하였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한편 대리 파트를 보자면, 일단 민사소송에서 대리 파트는 그 중요도에 비하여 수험가에서는 당사자에서 진을 빼서인지

유독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일단 몇 년 전에 출제될 당시에 일종의 불의타였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전혀 불의타가 아니었고(심지어 그 해 출제될 것이라 예상도 했었지요),

이번에도 대리가 이미 출제되긴 했지만 다시 출제될 때가 되었다고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소송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에 관한 단문 준비를 하였다면 이 부분 논점을 어떻게든 써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출제된 것보다 더 세부적인 논점을 물었기는 하나, 대리권의 범위를 논할 수 있을 정도면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심급대리원칙의 인정 여부를 논한 후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 부활의 문제를 별도 목차로 논하면 될 것입니다)

### 제2문

공시송달의 문제가 드디어 출제되었네요. 원래 작년에는 특A급으로 준비시켰는데, 올해는 그 보다는 낮은 A급 수준으로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제가 강의 시간에 교과서를 수정하여 다시 단문 준비를 하였고, 판례의 태도가 개정법

아래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일지 지켜보자는(그러나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 까지 준비시켰습니다.

물론 작년에 송달의 문제가 출제되기는 하였으나 민사소송 실무에서 공시송달의 중요성, 민소 법학에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개정된 공시송달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논점이었기에 다들 잘 준비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법 조문만 옮긴 경우와 조문에는 없는 논점 - 공시송달 규정의 적용 배제, 공시송달과 판결의 편취, 공시송달과 추후보완 등 및 개정법하에서의 기존 송달의 하자의 유효성이 유지될 것인지 - 들이 중요 득점 포인트라 할 것입니다.

### 제3문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올해 병합소송에서 하나를 준비해야 한다면 바로 그것은 청구의 병합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출제가 예상되었던 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를 다 준비하여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물론 예비적 병합이 유력했지만, 강의 시간에 말한 바와 같이 돌아와 출제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수험생들이 예비적 병합을

주로 준비했을 것이므로 선택적 병합을 낼 수 있으니 이것도 예비적 병합만큼이나 단문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준비를 했던 부분이므로 무난히 답안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앞으로의 공부방법)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은 부분 및 논점이 향후 출제될 첫번째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제소전 사망, 장래이행의 소, 변론주의, 소송절차의 중단, 기일의 불출석, 청구의 변경, 상소 등(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입니다)은 아예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한편 처분권주의나 당사자, 공동소송, 관할 등(그 외에도 많습니다)은 출제된 부분이기도 한 논점별로 다시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으로 출제된 부분이기도 한 논점에 따라 미출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처분권주의의 소송물 부분은 이미 몇 번이나 출제되었습니다만 일부인용판결 부분은 아직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기판력은 출제되기는 하였으나 주관적 범위(그것도 승복담탈 중 '담'만이 출제되었습니다)만 출제되었습니다. 관할도 출제되기는 하였으나 사물관할이 출제되었고 토지관할(합의관할, 관련 재판적, 변론관할)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전부가 출제되기는 하였으나 케이스의 부분논점으로 다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주로 단문 25점 기출문제가 그렇습니다. 중복제소, 재소금지, 반소, 소송상화해가 그런데, 그 중 해당요건 중 일부만을 묻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와 무관하게 매년 출제가능한 부분이 달라집니다. 중요도로 치면이야 공동소송은 매년 출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험이라는 것이 그렇지만은 아니니, 바로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예비적 공동소송이 그러했고, 올해는 당사자적격이나 공시송달, 청구의 병합이 그러했습니다.

올해의 교재, 올해의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일반적인 민사소송법의 중요도는 내년 시험 준비와는 전혀 다른 문제일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민사소송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교과서와 같지는 않더라도 타인에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전혀 민사소송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해서 이해케 해보세요.

그럼 잘하게 될 것입니다. 교과서적 표현은 나중에 닥치면 다 암기가 되는 것이니 미리부터 교과서 단문 펼치고 암기하는 누를 범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설사 암기가 덜 되어서 교과서적 표현이 답안지에 현출이 되지 않았어도 이해가 잘 되어서 설명하듯 풀어서 설시하면 좋은 답안이 됩니다. 교과서와 동일하게 쓰려고 하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